



## 유구한 역사의 고장 강화

강 옥  
자유기고가

강화도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역사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서해안 강화만에 위치한 이 지역에는 청동기시대의 유물인 지석묘를 비롯하여 단군의 유적인 참성단과 삼랑성 등 고대 문화유적이 있다. 그리고 고려 19년(1232)에 몽고와의 항쟁을 위해 개경에서 천도한 후 고려의 옛 도읍지로서 39년 동안 7차에 걸친 몽고군의 끈질긴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줄기찬 투쟁을 계속하면서 고려문화의 정수인 팔만대장경 및 금속활자와 고려자기 등 찬란한 민족 문화의 꽃을 피웠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인조 5년(1627) 정묘호란과 인조 14년(1636)의 병자호란 시 피난 수도이기도 했던 곳으로 강화군 전체가 천연의 요새인 동시에 수도방위의 전초기지로서 큰 몫을 다하여 왔다. 조선 말기에는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천주교의 탄압으로 빚어진 프랑스 함대의 침략사건인 병인양요(1866)와 미국의 통상요구가 발단이 되었던 신미양요(1871)가 있었고, 그 후 운양호 사건(1875)으로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조약 등 격동의 개화여명기에 풍운을 겪은 역사의 현장이다.

강화군은 1995년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으며 5진, 7보 53돈대 등 많은 국방유적과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1977년 10월 전적지를 복원, 정화하였으며 단군신화가 서린 마니산을 국민관광지로 개발하였고, 동 지구내 함허동천 계곡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개발한 시범 야영지가 있다. 강화도는 이제 수도권에서 가장 손쉽게 가볼 수 있는 관광명소로서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참성단은 해발 467m인 마니산 정상에 있다. 마니산은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이다.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의 중심에 위치한 민족의 영산으로 꼽힌다. 참성단은 단군왕검이 하늘에 제사 드리던 제단이다. 근래에까지 매년 10월 3일에는 나라의 태평함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사를 강화 군수가 제주가 되어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 1953년부터 전국체육대회 성화 채화지로 지정되어 참성단 위에서 칠 선녀에 의하여 태양열에 채화된 성화를 성화주지들에 의해 대회장으로 봉송 점화되고 있다.

참성단은 단군의 제천지(祭天地)로 사적 제136호로 지정되어 있다. 자연석에 의지하여 둥글게 쌓은 하원단과 네모반듯하게 쌓은 상방단의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방단 동쪽 면에는 21계단의 돌층계가 설치되어 있다. 그 후 인조 17년(1639)과 숙종 26년(1700)에 중수되었다. 마니산에 참성단을 쌓아 하늘에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은 마니산이 그만큼 정결하며 장엄하고 뛰어난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강화도는 생김새가 천하의 요새로 되어 있고 문물이 발달하였으며, 마리(摩利), 혈구(穴口) 등 하늘과의 인연이 깊다고 예로부터 알려졌다. 또 개국신화의 등장인물인 '우사(雨師)'와 '운사(雲師)'도 마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들은 환웅의 권속이므로 결국 단군이 참성단을 설치하여 하늘에 제사지낸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

민족의 성지로 산세가 수려하고 기암절벽이 산재한 마니산에는 '신선놀음'에 관한 구전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먼 옛날 나무꾼 3명이 나무를 하러 마니산에 올랐다가 숲 속에서 수상한 행색의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들은 노인들이 원하는 술을 마시고 바둑 구경을 하다 자기 동네로 돌아왔는데 이미 300년이 지나 친구들이 모두 세상을 뜨고 말았다고 한다. 그 술이 불로주임을 알고 이로부터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유서 깊은 전등사는 강화에서 가장 큰 절이다. '강화도' 하면 흔히 전등사를 생각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고구려 소수림왕 11년(381)에 아도가 창건하여 진종사라 하였다고 전한다. 그 후 고려 제 27, 28, 30대의 충숙왕·충혜왕·충정왕 때에 수축하였고, 조선 인조 3년(1625)과 1906년에도 중수하였다. 또 일제 강점기에도 두 차례 중수하였다고 한다. 전등사라는 이름은 충렬왕의 비 정화공주가 이 절에 옥등을 시주한 데서 유래했다. 이때 정화공주는 승려 인기에게《대장경》을 인쇄하여 간행한 후 이 절에 봉안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울창한 산속에 전형적인 가람배치를 따르고 있는 전등사에는 보물 제178호인 전등사 대웅보전, 보물 제179호인 전등사 약사전, 보물 제393호인 전등사 범종 등이 있다. 대웅보전이 정남향을 향하고 있고 그 왼쪽으로 같은 형식으로 지은 약사전이 있어 마치 두 채의 대웅전을 보는 느낌이다. 우아한 건축미를 사랑하는 대웅보전의 처마 네 귀퉁이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지는 나체의 여자 조각상이 있어 눈길을 끈다.

보문사도 강화도가 갖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강화읍에서 자동차로 20분쯤 달리면 외포리 선착장에 닿는다. 여기서 배를 타고 흰 물살을 가르고 10여분쯤 달리면 삼산면 선착장에 이른다. 갑판 위에서 상쾌한 바다 바람을 만끽할 수 있다. 흰 갈매기 떼 들이 끼익 끼익 소리내며 배 주위를 맴돌며 따라오고 있는 모습도 가히 장관을 이룬다. 보문사는 선착장에서 약 8km를 더 들어가야 있다. 절로 가는 도중 때문지 않은 어촌 풍경과 싱그러운 바다 내음을 흠뻑 맛볼 수 있다. 특히 바다를 전망으로 군데군데 지어진 아름다운 펜션들이 인상적이다.

신라 선덕여왕 4년(635)에 세워진 보문사는 남해 보리암, 낙산사 홍련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로 널리 알려진 사찰이다. 경내에 들어서면 큰 법당 왼쪽으로 '경기도 석굴암'이라 일컫는 석굴 법당이 있고, 그 뒤 가파른 벼랑에는 관세음보살이 조성되어 있다. 보문사는 절 그 자체보다도 서쪽의 뒷산에서 바라보는 서해 낙조로 더 유명하다. 이곳에서 보는 서해 다도해와 붉게 물든 낙조는 가히 절경으로 강화팔경의 하나로 꼽힌다. 석모도 저녁 노을은 이제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주말이면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강화읍 관청터에는 고려의 궁궐터인 사적 제133호 강화 고려궁지가 있다. 이 궁지는 고려 고종 19년에 몽골군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하여 왕도를 강화로 옮긴 후 원종 11년에 화의를 맺고 개성으로 환도할 때까지 39년 동안 왕궁터였다. 이 자리에는 당시의 건물 기단과 3단으로 된 돌계단이 남아 있었으나 후에 강화유수부 건물이 세워졌으며, 1976년에는 3문의 출입문을 세우고, 돌담을 돌려 국방유적으로 정화하였다. 고려 궁정의 건물로는 본궁이 연경궁, 그 북동쪽 언덕에 강안전, 소동문을 들어가 성마루터 북쪽에 경령궁, 옥림리 자문고개 서쪽에 건덕전, 그 동쪽에 장녕전, 뒤쪽에 만녕전, 그리고 북창문 밖의 대묘동에 태묘전각으로 대관전과 신격전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모두 없어졌다.

강화도라고 하면 인삼과 함께 누구나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화문석이다. 발석이라고도 하는 화문석을 언제부터 강화도에서 짜기 시작했는지는 뚜렷하지 않다. 다만 고려 중엽부터 북송과의 교역품목으로 금, 은, 구리, 인삼, 합죽선과 함께 화문석이 들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 후 강화 화문석은 조선 말에는 왕실로부터 화문석의 도안을 특수하게 만들어 올리라는 명을 받아 호랑이 무늬가 놓인 화문석을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어 그 질의 뛰어남을 알 수 있다.

강화 화문석이 유명하게 된 것은 이 지방에서 나는 완초 곧 왕골의 품질이 좋기 때문이다. 왕골은 땅은 습하면서도 날씨는 맑고 따듯해야 잘 자라는데 강화에서 나는 왕골은 다른 지방 것 보다 길이가 더 길고 빛도 더 희다. 강화읍에 오일장이 서는 날이면 으레 화문석장이 열린다. 이른 새벽부터 꽃뚝 자리, 꽃방석과 크기가 저마다 다른 바구니 세 개가 한 벌이 되는 꽃삼합이 쏟아져 나온다. 강화 특산물 꽃무늬 완초 공예품은 다른 지방에서는 거의 생산되지 않는 순백색 왕골(완초)을 재료로 물감을 들

여 수작업으로 짠다.

또 다른 특산품인 강화 인삼은 고려 인삼의 원산지인 고려 때(1232년경)부터 재배되어 왔다. 특히 육이오 전쟁 후 남쪽으로 피난 온 개성 사람들이 이곳에 인삼을 심기 시작하면서 인삼의 산지가 되었다. 인삼은 기후, 토양, 환경조건 등의 재배 조건이 까다로우나 강화도는 6년근 인삼산지로 최적지여서 주로 홍삼원료로 많이 생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건강식품이 아닌 만병통치의 신비의 영약으로 각광 받고 있어 많이 수출되고 있다.

강화순무는 삼국시대부터 재배설이 있고, 순무 김치를 임금님께 진상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감미롭고 겨자향의 독특한 맛이 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이뇨와 소화에 좋고, 종기를 치료하며, 만취 후 갈증해소에도 특효가 있는 건강채소로 유명하다.

한편 이 지역의 별미 음식으로는 뱀장어구이, 뱀망이회, 황복어회 등이 유명하다. 뱀장어구이는 선원면 신정리(더리미)가 주산지며, 고단백 식품으로서 기력을 증진시키는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매월 5월경에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뱀망이회는 값도 싸고 고소하며 별미식품으로 내가면 외포리, 황청리, 화도면 내리등지가 유명하다. 황복어회는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되는 민통선 인근인 하점면 창후리가 주산지이며, 매년 4월 중순에 시식 할 수 있는 별미 음식이다. 🍲

